즉시 배포용: 2023년 8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망명 신청자의 쉼터 및 지원에 대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뉴욕 주민에게 제공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뉴욕시에 망명 신청자 지원 상환금 2억 5천만 달러 지급

*뉴욕주 인력은 연방 관리의 **Floyd Bennett Field, Fort Wadsworth** 방문을 지원했으며 미 내무부와 내일 회의를 갖고 **Hochul** 주지사와 **Tom Perez** 백악관 사무관의 생산적인 회의 결과를 지속 추진*

*링컨 교정국 및 **JFK** 공항의 뉴욕주 소유 부지를 망명 신청자를 위한 임시 쉼터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크리드무어와 랜달스 아일랜드의 부지 역시 이번 주부터 망명 신청자 수용 예정*

***Hochul** 주지사는 추가 방위군 인력을 이리 카운티로 파견하여 쉼터 부지의 물류 및 운영 지원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뉴욕 도착 이후 주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뉴욕 주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미 뉴욕시에 2억 5,000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연방 정부와의 협력 모색, 추가 주 방위군(National Guard) 파견 등이 포함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뉴욕에 도착한 이래로, 우리는 뉴욕시와 쉼터 제공이라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재정과 인력, 장비를 지원하고 연방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회계연도 2024 예산에서 확보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뉴욕시의 비용 보전을 위해 2억 5,000만 달러를 이미 집행했습니다. 뉴욕시의 추가 재정 지출에 따라 지원을 계속될 것입니다. 뉴욕시에 지금된 2억 5,000만 달러는 인도주의 비상 대응 구조 센터(Humanitarian Emergency Response and Relief Centers, HERRC), 피난처, 구호 주택을 비롯해 즉시 도움이 필요한 망명 예정자를 돕는 내비게이션 센터 등의 운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4 예산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자금으로 뉴욕시가 지출한 금액의 29 퍼센트를 보전합니다. 보전 대상 지출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임금, 보안, 유지, 청소
-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서 진행되는 주요 복지 프로그램
- 쉼터 비용, 식료품, 개인용품 또는 서비스(의류, 침구, 위생용품, 침대, 기저귀, 빨래 등)
- 교통 및 통역 서비스
- IT 장비 및 지원

회계연도 2024 예산에 포함된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따라 이미 망명을 신청한 1,250 가구 또는 약 4,375명의 자발적인 이주를 돕습니다. 해당 자금은 호텔과 대규모 수용 시설의 임시 숙소에 배정된 회계연도 2024 예산 7억 달러에 더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을 충족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17가구가 뉴욕주 및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었으며,뉴욕주는 계속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이주를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주 후 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기관을 소개받으며, 그 기간 동안 뉴욕주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Tom Perez 미 대통령 수석 보좌관과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Hochul 주지사와 지역 지도자들이 수 개월 동안 지원해 온 해당 사업에 대한 연방 지원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연방, 시 공무원들이 Floyd Bennett Field 및 Fort Wadsworth의 연방 소유 부지를 방문하여 망명 신청자를 위한 쉼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Hochul 행정부 공무원들은 미 내무부(U.S. Department of Interior) 공무원들과 내일 회의를 갖고 연방 소유 부지를 쉼터로 사용할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방위군 및 자산을 이리 카운티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해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리 카운티 파견에 앞서 뉴욕시 쉼터의 물류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주 방위군 인력 1,800명 이상이 파견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 호텔을 활용하는 30곳 이상의 쉼터에서 뉴욕주 방위군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주정부 인력은 또 다른 18개 시설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퀸즈 Creedmoor Psychiatric Center에 위치한 쉼터가 다음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최대 망명 신청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운영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쉼터가 곧 랜달스 아일랜드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맨해튼에 위치한 과거 링컨 교정시설(Lincoln Correctional Facility) 부지와 퀸즈의 JFK 공항 내 주정부 부지 등을 임대하여 6월부터 쉼터를 운영했으며 일간 1,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